



조지 발란신의 찬란한 무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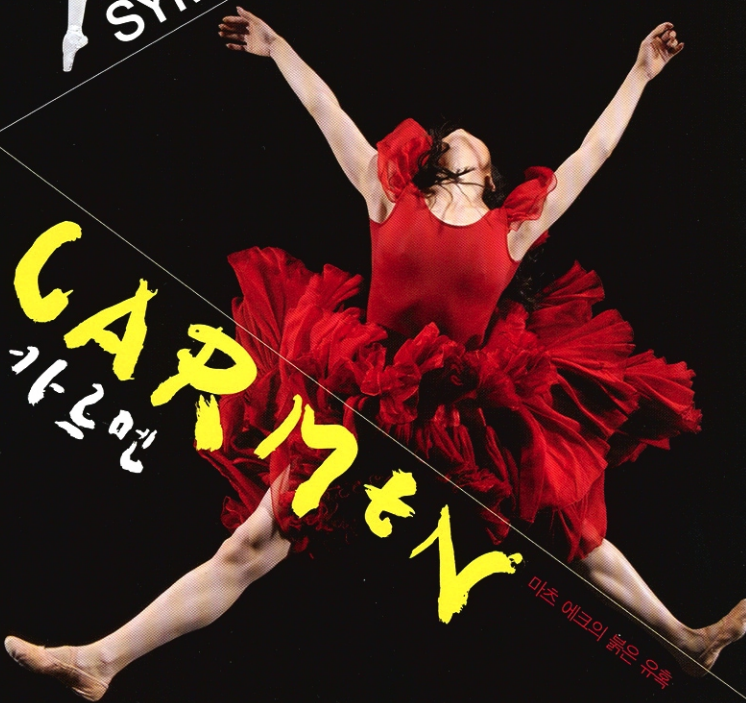
SYMPHONY IN C



극립발레단
KOREA NATIONAL BALLET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Seoul Arts Center, Opera Theater

2006. 10.24(화) ~ 10.28(토)
8:00pm. (화~금), 5:00pm.(토)



카프카
CAPPUCCINO

미츠 에크의 붉은 유혹

조지 발란신의 찬란한 무색

Symphony in C

비제 음악에 추는 2가지 색 춤의 향연



카르멘

마츠 에크의 붉은 유혹



심포니 인 C

카르멘

모던 발레의 거장 마츠 에크의 한국 초연작 <카르멘>과 신고전주의 창시자 조지 발란신의 <Symphony in C>를 통해, 국립발레단의 파격적이고 감각적인 춤의 전율을 10월24일(화)~10월28일(토)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 <카르멘>은 2003년 이후 3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스웨덴의 천재안무가 마츠 에크와 그의 스태프들이 총출동하여 국립발레단 무용수들과 함께 펼쳐 보이는 강렬하면서도 파격적인 무대다. 거기에 영화 "셀 위 댄스?" 여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쿠사카리 타이요(草刈 民代)가 출연하고 같은 배역에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급 무용수 김주원과 캐릭터 솔리스트 노보연이 경쟁함으로써 관람 욕구를 더더욱 자극한다.

● <카르멘>의 이 파격적이고 강렬한 '붉은 유혹'의 색채에 대응하는 것은 20세기 또 다른 천재 안무가 조지 발란신이 52명의 무용수들과 함께 비제의 교향곡에 맞추어 펼쳐는 '찬란한 무색' <Symphony in C>. <카르멘>이 새롭고 감각적인 작품에 전율하는 젊은층들을 위한 것이라면, <Symphony in C>는 클래식 애호가들과 음악 전문가들이 언제나 그들의 관람 리스트 최상위에 두는 고아한 작품이다.

I

두 개의 비제음악이 펼쳐는 두개의 춤 - 비제의 최고 걸작과 최초 교향곡

프랑스 음악가 중 가장 재능이 뛰어났던 비운의 천재, 조르주 비제가 남긴 최고의 걸작 <카르멘>과 17세 나이에 작곡한 최초의 교향곡 <Symphony in C>를 발레화 한 두 개의 작품이 한 무대에서 펼쳐진다. 특히 <카르멘>은 조르주 비제에 의한 오페라 원형을 현악기와 타악기를 위해 독창적으로 각색한 로디온 셴드린(Rodion Shchedrin)의 "Carmen Suite"를 사용하여 더욱 색다른 <카르멘>을 연출하였다.

G. Bizet

II

두 명의 천재 안무가 - 마츠 에크와 조지 발란신

스웨덴 태생의 안무가 마츠 에크는 오늘날 유럽에서 손꼽히는 천재안무가 중 한사람. 국내에는 2003년도에 선보인 대머리 백조가 등장하는 <백조의 호수>와 정신병동을 배경으로 한 <지젤>(Giselle)을 통해, 그만의 독특한 작품 해석을 선보인 바 있다. 마츠 에크의 <카르멘>은 1992년 콜베리 발레단을 위해 만든 것으로서, 스페인 문화예술청의 요청에 의해 세비아 엑스포와 바르셀로나 올림픽 그리고 아메리카 발견 500주년 기념을 위한 것이었으며, 1995년에 에미상(E Emmy Award)을 받았다. 이번 무대는 한국 초연은 물론 아시아 최초 공연 및 프로덕션 제작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조지 발란신 역시 20세기 최고의 안무가로 주목받아왔다. 현재 그의 모든 작품은 '발란신 트러스트'에 의해 저작권 및 공연의 수준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이번 공연을 위해 콜린 니어리가 조안무 및 트레이너로 국립발레단 단원들을 직접 지도한다. 한 세기의 대표적 천재안무가 마츠 에크와 조지 발란신의 작품을 함께 소개하는 이번 공연은 기존 클래식 발레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진한 전율과 새로운 활력을 선사할 것이다.

Choreographers

III

한·일 발레 스타들의 하모니

영화 <월 위 댄스?>의 배우로 출연하여 더욱 유명한 일본의 발레리나 쿠사카리 타이묘(草刈 民代)를 비롯하여 무용계의 아카데미 시상식이라 할 수 있는 "2006 Benois de la Dance(브누아 드 라 댄스)"에서 최고여성무용수상을 수상하여 세계 발레스타로 부상한 국립발레단 간판스타 김주원, 캐릭터 솔리스트로 개성 강한 춤을 선사하는 노보연, 한국 남성무용수의 대표 장운규, 이원철이 한 무대에서 하모니를 펼쳐 보인다. 또한 국립발레단 무용수들의 '연기'와 '소리'가 더해진 전에 볼 수 없었던 독특하고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할 것이다.

Star

IV

최고의 스태프와 철저한 준비 과정

마츠 에크의 독창적인 안무와 함께 <카르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주역인 카르멘과 단조로운 듯 화려한 의상,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내는 무대장치이다. 이번 공연에는 1992년 콜베리 발레단 초연 당시 주역을 맡아서, 한 남자를 파멸로 이끄는 악마 같으면서도 매혹적인 카르멘의 모습을 완벽하게 소화해낸 안나 라구나와 바젤발레단의 주역무용수였으며, 현재 프리랜서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는 허용순, 뒤셀도르프 발레단의 수석무용수 유록 시몬이 조안무로 참여한다. 지난 2005년 12월에 내한, 1차 캐스팅 선정을 시작으로 올 1월에는 국내 현지 의상 및 무대제작자가 독일을 방문, 마츠 에크와 안나 라구나를 비롯한 마리 루이제 에크만(무대 및 의상디자이너)을 만나 제작관련 스태프 회의와 함께 하노버 오페라발레단의 <카르멘>을 보고 제작에 임하였으며, 6월에는 페더 프라이즈의상 및 무대 어시스턴트가 방한하여 제작에 관한 중간 점검을 하는 등 1년 여의 철저하고 섬세한 제작과정을 거쳐 원작에 더욱 가깝고 사실적이며 생동감 넘치는 카르멘을 창조한다.

Staff

금번 공연 <카르멘>의 주역으로는 영화 "셀 위 댄스?"의 배우로 출연하여 더욱 유명한 일본의 발레리나 쿠사카리 타미요(草刈 民代)가 출연한다. 1996년 제작된 영화 "셀 위 댄스?"는 일본에서 2200여 만 명의 관객을 동원함으로써 댄스 스포츠 붐을 일으킨 작품이다. 1996년 일본 아카데미상 13개 부문을 석권, 미국 선댄스 영화제를 비롯한 세계 유명 영화제에 초청되어 호평과 함께 허리우드에서도 리메이크 할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개봉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다. 국내에서 이 영화의 여주인공이었던 쿠사카리 타미요는 차가우면서도 아름다운 댄스교습소 강사역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녀가 발레리나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녀는 8살 때부터 발레를 시작해 84년에 마키 아사미발레단에 입단 하면서 <호두까기 인형>의 주역으로 발탁되어 데뷔했고, 87년에 전국무용콩쿠르 제 1부 1위, 문부대신장관상 수상, 87년 무라마쓰상 무용 부문 수상, 89년 제116회 다치바나 아키코상 최우수상 수상 등 수많은 상을 수상하였다. <집자는 숲속의 미녀>, <백조의 호수> 등 클래식 대작에 주역을 맡는 한편, 발레의 본고장인 모스크바, 유럽 각지에서 초대를 받는 등 명실상부, 일본을 대표하는 프리마돈나이다.



영화 "셀 위 댄스?"의 여주인공 쿠사카리 타미요(草刈 民代)

